

두껍아, 두껍아 현집줄게, 새집다오

어릴적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놀이.

‘두꺼비집 짓기’

하지만, 현집과 새집을 뱅글 바퀴주는

인내심종은 두꺼비는

불행히도 현실세계엔 없는 듯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 1학기.

올바른 의견수렴없는 본관건축 계획, 중장기 발전안....

돈으로 쌓는 ‘찌든 새집’ 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치어지는

속이 알찬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방학.

속이 들어찬 새집을 짓는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사설

‘공동연대’의 끈을 잇자

견해자 극복, 98년 성과이어야

세월이 지난 98년 9월, 서울에 들은 기점으로 시작했던 배움터의 한 학기가 끝나간다. 대학에서의 세 학기는 졸업생의 한 주년을 만든다. 종강시간이 가까워 다해서 유년의 짧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한 것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학기가 아니냐고 싶다. 우선 올해 초 사립대학들의 기하급수적인 등록금 인상과 맞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투쟁을 전개, 몇 년만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등 가치적인 성과를 보였다.

또한 우리학교의 경우, 학내(내) 및 학외(외)의 열정적인 학생들을 기초로 제 2학년에서 발표한 중점적 발전안이 수반으로 보고된 기간이기도 했다. 물론 학원의 구성원의 대다수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여분도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

그 외, 서울배움터 본관건축 문제, 계속되는 교수임용을 둘러싼 갈등들을 통해 지난 98년 제1부문의 성과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삼삼하게 들리고 있다.

그 속에서 1만 3천 외대인들을 책임지는 양배울의 총학생회는 어떠했을까? 부정선거, 연장선거의 무어곡절 끝에 지난 3월 위로는 학생회를 출범시킨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대동체, 본관신축 반대안 여론화 작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양배울의 경우 지난해 벌어졌던 등록금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투쟁, 대학수업 선진화, 총학생회 참가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과정이 있었다. 그 속에서 아쉬운 점은 양배울의 ‘공동연대’라는 이름이 조금 더 본분했더라면 하는 점이다.

앞서서 언급한 대학당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 배움터의 의의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지난 겨울방학, 양배울 학생들이 함께 했던 등록금 투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물론 그 후에 성과와 한계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서울배움터는 호기부터 끝나버린 용인한 경험이었지만 말이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외대발전’은 서울이나 용인한 경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양배울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배움터에서 ‘비서서 플랜’이나 ‘외대발전 5개년 계획’이 아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발전안들이 유명무실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의를 이룩하고 연결고리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혹은 한 배움터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발전방안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지난주 본보에서 실사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투쟁을 양배울의 연대해야 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58.6%)

우리는 지난 98년 제1부문을 통해 이직까지 ‘실질적 의결기구’가 아니라 한계가 남아있는 하지만 양배울 학생대표, 교수, 직원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구인 ‘대학발전위원회’를 건설해 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것은 성과를 마치 지금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마냥 일방적이 없는 논의구인 ‘대학발전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학교를 만들어 가고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학원 3주체의 협력이기 때문이다.

그간 양배울의 학원의 견해나 외대발전안을 두고서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작은 만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여겨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학인들이 원하는 바이다.

학사일정표

- 6월 15일(목) ~ 21일(수) 제1학기 기말고사
- 6월 22일(목) 하계 방학 시작
- 6월 28일(수) 제1학기 성적 입력 마감
- 7월 10일(월) ~ 14(금) 제1학기 성적 조정

등록금 지면 협상

재원 조달 방법은 재단의 수입원이다

하강곡선 막기위해선 등록금인상 불가피

비가 오고 창문이 조금만 쳐도 창문이 되는 용인 배움터. 길가만한 배움터를 하얗게 하거나 담구 장 차를 기다려야 하고, 1시간이 넘게 용인시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수업을 지쳐서 못 듣는 현실이 그날 두고만 보아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잠깐 통학시간이 5시간에 달하는데 서울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등록금은 90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올해 등록금은 10년 전과 비교해 최고 세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대와 전국 사립대학들의 교육 현실은 과연 그렇게 등록금이 오르면 세 배가 높아졌습니까? 대부분의 사립재단들이 충분히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교육재정의 확충입니다.

작년 등록금 조달위원회의 첫 회의사항이 학생들과 협의 없는 등록금 인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새내기 14% 재학생 평균 9.8%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학교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방법은 안정적인 학교 재원의 수입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기본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백 번 양보해도 그 동안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한 등록금의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공감을 일으키고 이제 학교는 2000 규모의 증축을 이야기하는 지금에 학교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된 학생 등록금 자체 40%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인상 과정 정당화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 수 차례 대화를 요청하였고 강의 방문, 단식, 집기 반출, 등록금 환불 서명운동, 리본 달기 운동, 점거, 또다시 단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방법론적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

다. 타당한 지적도 있었습니. 지상인의 행동, 스승에 대한 예의, 합리적인... 학생들의 불만... 하지만 3월 30일 점거에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의 대 무당과 침묵, 점거 이후에도 2000여명의 등록금 환불 서명과 대표자들의 단식에 대한 또 다시 침묵과 대 무당...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 그 동안의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내, 장학금, 자치회비등을 묶고면서 학생의 활동을 감금으로 묶고 철저히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지치고 무너져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학교의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학교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하위하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약속을 함부로 내던지 지 말고 대화의 자리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정도가 무의미지,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날로 지성인다운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US

런 상황에서 등록금의 폭등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하강곡선을 그어온 대학의 현실이 더 이상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등록금의 인상은 학교로서도 안타까운 결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결과는 고교생의 입학,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구입 등을 통하여 일부는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후 학교의 정치적인 영향을 통하여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학교는 지금도 등록금 외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이라

지난 한 학기동안 용인캠퍼스는 등록금문제로 큰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통은 생산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학교의 능력을 소진시키는 소모성 진통이었습니다.

대학은 전문지식인을 배출하는 장소인 동시에 사회의 미래를 인도할 지성인을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과업은 단지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의 중견 혹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졸업생들만이 함유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회와 국가가 모두 대학교육의 수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은 학내 제 구성원들의 소망이며 학교는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도의 의무 같은 바

를 이루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발전은 상당 부분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외대의 재원은 관공리 사립으로 인상은 학교로서도 무뎌한 현금 수입원을 갖고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 등록금의 폭등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하강곡선을 그어온 대학의 현실이 더 이상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등록금의 인상은 학교로서도 안타까운 결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결과는 고교생의 입학,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구입 등을 통하여 일부는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후 학교의 정치적인 영향을 통하여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학교는 지금도 등록금 외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이라

도 학교의 발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대학과 소위 일류대학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종국에는 따라 잡기 힘든 현상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학기동안 용인 총학생에서는 등록금의 동결을 끊임없이 학교에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총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의 개선 방법은 합리적이고 지성적이야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용인캠퍼스의 학내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총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대학의 의지가 없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학교는 대화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회피할 필요성도 느낀 바 없습니다. 결국 대화로서 그 사태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이점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그것도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일의 해결방법은 선생과 학생, 선배와 후배로서의 예의를 갖춘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선생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때

입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이점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학생들과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가능한 한 학생들이 요구하기에 앞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기성

(성공공학과 교수, 용인배움터 학생회장)

한총련 학원지주회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경(경북대 총학생회장) 군을 만나

“2학기에는 전국대학 공동연대투쟁으로 교육사안 다각적 모색”



한총련 학원지주회추진위원회(학자주)의 올해 상반기 교육정책정보투쟁 투쟁을 어떻게 내리고 있으며 이후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등록금인상문제 투쟁이 예산에 비해 학생들의 부담은 지지고 교육

정책의 본질을 밝히는 투쟁으로 펼쳤는데 성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의 본질적 해결방법은 현재 벌어지는 미국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교육정책인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칙에 있음을 합의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학자주에 늦게 꾸러지는 상황에서 단위 학생들의 요구를 원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교육정책정보투쟁이 단위학원의 투쟁으로 진행되는 일정 정도의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이번 투쟁이 청년생존권·민중생존권 문제 외에도 불구, 전 사회적인 여론화현상의 미흡으로 대학 안의 투쟁으로만 머무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학간 공동연대 투쟁이 내실있게 이뤄지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

학자주와 교육대책위가 ‘교육 대개혁’을 위한 공동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사항과 이후 공동투쟁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육대책위와 제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와 민중의 이익에 앞서는 사상과 정견을 내어선 현정권의 반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연대투쟁을 발의 것을 합의했다.

현재 교육대책위를 비롯한 연대조직과 내실있는 공동연대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체 형식의 조직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활동방안과 계획은 연대조직들과 논의를 통해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연대투쟁이 절실한 요구되고 있는 만큼 매 시기마다 제출되는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이 연대투쟁을 통해 반장·반비의 정서를 만들어가겠다.

성공과대학의 김대중, 전국대처할 전국 대학에서 자

영되고 있는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권 탄압에 대한 한

총련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하게 펼쳐지면서 기층 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탄압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해하기위해는 과 학생회 강화와 함께

한총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총련차원에서 학생자치권 탄압이 노골화되는 대학에 적극 지지·지원하는 방법으로 공동 연대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한번이 학자주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투쟁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총련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교육정책과 김대중 정권의 반교육정책 정책 분석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단위의 사안별 투쟁을 전국적인 공동연대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재 국립대 특별회계법, 모교단위 공영화 등 교육개혁들이 오는 9월 정가국회 때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다각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교육재정 0%화보를 2001년 예산안에 책정할 수 있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논의 중이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정보통신의 미래가 내 머리 속에 있다!

제5회 M&M 논문대상 공모

세계일류 종합정보통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생각을 기다립니다. 내일의 인재를 발굴하고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하게 될 우수논문과 멀티미디어 관련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 **논문주제** : (아래 관련 주제 중 택1)
· 정보통신 정책 분야 · 정보통신 Marketing 분야 ·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신상품 개발 분야

▶ **논문분량**
· 본 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A4 Size 20매 이내) · 요약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A4 Size 9매 이내)
· 본문은 원문 1부와 요약문 3부, 총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원문 1부를 반드시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Word, 아이라인, 폰트 등등에 한함)

▶ **심사내역** : (1) 심사위원 5명 중 3명 전원 투표권 (2명 투표권)
· **대상 (1인)** : 상금 1천만원, 상패 및 해외여행 · **금상 (1인)** : 상금 5백만원, 상패 및 해외여행
· **은상 (2인)** : 상금 3백만원, 상패 및 해외여행 · **동상 (6인)** : 상금 2백만원, 상패 및 기념품

▶ **심사** : 1차 : 예비심사 ▶ 2차 : 본심사

▶ **접수기간** : 2000년 9월 15일 ~ 9월 30일

▶ **논문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 110-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린동 99 SK텔레콤 홍보실 M&M논문대상 공모 담당자 (전화 744-0444)
· 문의전화 : (02)2121-4745 · 홈페이지 : www.sktelecom.com

▶ **기타**
· 접수시 신청서와 제작성명서 제출 · 송신문은 창작물로서 타 논문공모 진행률 등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SK텔레콤 소유임 · 당선일은 2000년 11월 초에 발표(개별통보)

■ 주 최 : SK텔레콤 康道日 康 ■ 주 원 : 정보통신부

SK Telecom

2. 올바른 중장기 발전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가?



의 의견으로는 중점기(발전기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2020년(12.25%) 정도, 무엇보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로(72.9%) 하는 것(71.1%) 정도 였다.

본문진술과 관련하여서는 65.9%(33명)의 학생들이 반대, 24.6%(13명)가 양쪽은 어느 한 쪽도 반대는 아니다, 9.5%(5명)는 이유를 예시로 들지 못하여 둘 중 하나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결론(34.3%) 29%를 차지한 '기타'의 견해에서는 '본문보다 호응적인, 기술자 등의 역할이 더 시급하다' '최소한의 휴식시간만 마비된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등의 의견이 지적되었다. 교사시간이 더 절감하지 않더라도(3.8%) 곧따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의견도 나왔다.

유료, 본인진술을 청취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공강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40.0%)는 의견(40.0%)을 끌어 내었다. 산악부와 다한 운동으로 공강시간을 가려하고 의견을 내었다. 그 이유 한데서 건물이 들어올려 학교 이미지가 제대로 파묘(20.0%, 1명) 기타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3. 사내배움터의 근면적인 운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정부의 교육정책(55.7%), 7.1%)을, 교육자의 기술과 역량(29%)가

(5) 다른 질문은 이 시기 전기와 전후의 대부분 학계의 사립학교 교육자들이 8~9% 인신관념에서 대항하기 위해 프러진 개념에서 '독특한 부형'에 대한 사색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서울대학교의 40~60점(36.7%~110.4점)은 일반대학에서 60~80점(40%~120%)의 점수를 기록한 학생들로부터 기록 많이 받았는데, 학생의 학업이 학업과 관련하여 기록된 다른 시기를 통해 얻은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0점~20점 사이의 점수는 10.7%나 되고 3점 이상의 학생이 아주 적은 수를 받았는데, 이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한 강반 학생들도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기록된 부형에 대한 내용은 점수로 나타내지 않은 다른 정량적 분석의 형태와 유사성이 높았지만 (60%, 300점)을 대다수의 학생이 기록한 것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종학생의, 학생의 학업을 하고 싶은 만큼은 '특정시기와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전기와 후기의 기록은, 전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기록된 부형에 대한 내용은 점수로 나타내지 않은 다른 정량적 분석의 형태와 유사성이 높았지만 (60%, 300점)을 대다수의 학생이 기록한 것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부

발전안 내용 공론화 시키는

재정확보 방안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한 재정회계 분야의 경우 최근 발간된 교육 프로그램인 「재정회계」를 보면, 회계학과는 물론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서의 회계와 회계유형의 재정 운영체제 구축, 복지제도 개선이라는 세가지 축을 그 기본으로 한다. 일단 작위적인 방식으로 기본모금을 진행하고 외국화중합연구센터 등 수익사업 면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재정회계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화중합연구센터의 경우 아직까지 몇몇 기업, 시의 연구수출이 있을 뿐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점 등 다른 수익사업 시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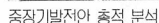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해 이 안에서는 '책임중심점 예산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마다 분배된 예산에 대한 운영결과와 책임을 해당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긍정적인 효과로 쓸데없이 낭비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각 기관별 전문화, 분권화를 이룰 수 있어 기대되는 대목이다.

대학원특화발전안

‘대한의학중심대학’으로 ‘유형별 특성화’를 획책한다는 것이 대학원 관련 발전방안의 주 골자이다. 유형별 특성화를 꾀하기 위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은 학술 및 실용을 병행, 전문대학원은 교육, 연구로써 특수대학원은 실무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발전시킨다.

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독화와의 위상과 목표의 문제, 산학협동이 되지 않거나 대학원의 경우 예산보조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가 주축하는 학회에서는 미래 대학원 중독대학에 대해 발맞추어 일단 현재 학부생·대학원생 5%의 인원을 비율을 3.7:1로 조정, 400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원 중독대학이란 학부과정에서 교양 및 기초전공과정을 습득하고 대학원에서는 전공심화과정을 밟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 고등교육의 질적 낙후 ▲ 대학원의 심화 학습하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됨 많은 학교에서도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에서도



중장기 발전안에는

재단 투쟁 후 미진한 개혁에 너무 길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러한 교수, 직원, 학생 등 재단 구성원들의 이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됐고 이에 따라 재단 구성하고 지난 5월 중장기발전전략을 거두었다.

발견을 도모하는데 있어 제화(制化)의
신 간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리하고 발전의 실효가 될 여지는
아래를 예로 들기 위한 배후주요
제대로 조망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에 실어놓은 대안연구에 대한
각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래처럼 및 그 달성 전망을
종합평가 수반 할 것을 연구
실현이론의 연구에 포함시켜
모든 도약 단계의 연구, 그리고
최고인 대안 단계에 이르러
들을 명하고 있다. 대안조망
의를 검토하는 것은 이에
평화와 더불어 교육공동체
기초이론이 때론 경험에서
실현되고 발표된다. 그 대안
복기적연구는 있다하여 논
복기에 급급하는 것은
재정주요인 대안과
수상 통해 대안연구의
교육정책과 및 학교공동체
경험에서 우위와를 위한
모든 대안조망과 비민주적

한 과도기가	결과물이었다.
위한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지적은 전	학간의 경쟁이
학평의원회	수 없다. 그러
학기화단을	전략적 지향점
을 발표하는	종합평가 순위
	것은 큰 문제라

이 문제를 제	도인 미완성
후 5년간 유	제정자를 위하
장정기발언한	의견을 수렴하
한 100여명의	학문 각 단과과
인 문과대학	학원에 대한
대학국의 심	이는 13개 단과
교리반대	자료를 준비
교리반대 대학	선에 40여명의
교리반대 위해	소스 개발기
문과대학	필요한 것
수준이 국내	및 대학원의 특
이는 대학	도 효율성을 제
자재가 아	그리나 다른
대학의 양적	확보 방안이
늘어나는 것이	아라는 점에 대
고통을 겪어	학은 산업대학
은 실업자	할 수 있지만
이는 건물을	이나 장부만
사실이다.	서 특별한 대학
이것은 정부의	레토 지시
부담이다	방향을 내세
이 대학서	권한을 넓었다
사실상의	부분의 독립대
학자 연구	과적으로 답

040 외대학보

“곳곳에 부실”

동시에 심각한 검토 필요



교육철학이 없다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율제에 운영의 허술함이 드러난 사례다.

중장기발전안을 추진하는데는 현재의 자급한 할 과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확보방안이 발 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일을 추진하든간에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된다. 타대학 대학발전안을 검토해 보면도 자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중장기발전안 중에는 자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이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무·회계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책정하고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확보할 것인지 없다. 재정·복지 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제도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재단전입금 확보만이 국가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내용이다. 우리대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지역의 내용이 부족하다. 각 나라의 다양한 상대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접근방식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지역적 우위보단도 지역의 기본이 되는 종합적 학문기반이므로 대학 중장기발전안이 빠지지 않는 항목에 하나 지역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중장기발전안에서는 실용적 학풍을 강조한 나머지 지역학의 중요성은 사라져 있다. 덧붙여 통일 교육과 관련 부산대 대학발전

안의 경우, '21세기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외가 제되는 남북한의 상황을 바라볼 때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움직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전망'하면서 이질화 된 민족의 통일을 회복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 중장기 발전안에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추진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대외구조조정과 일관된 행정조직의 탑재 도입은 '자비로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임금인하와 인건비 삭감을 통해 기업과 구조조정을 위해 그대로 도입한 것이라 비판되고 있다. 또 국제교류 학생 파견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학생의 간부 장학금의 대부분을 국제 교류 장학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식당이나 용인배우터 교통문제에 예산이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중장기발전안은 전략방향에서부터 교육내용, 복지사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학과발전을 하는 것은 제도적 선만 하면 된다는 인위적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개선에도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는 교육철학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발전안 추진에 앞서 대학당국은 74.9%의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발전안 내용을 홍보와 시민 후 구상원들의 참여 속에서 신중한 검토와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학부장 min329@hmail.net

세부분석II

언론사 통제

중장기발전안에서는 또 학보사, 아저스, 외대방송국의 세 언론기관을 통합하여 홍보수준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발전안의 추진배경은 '학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언론이 타대학보다 홍보면에서 뒤처지고 집적인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학교홍보나 발전을 위해서 언론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장기발전안에 전제적인 평가가 그렇듯 언론통합 역시 구체적인 방안과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하지만 학교홍보가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각 기관에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인 언론사에게서 학교홍보기능을 높여 주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복학과 통합

중장기발전안 중, 안배음터의 중복학과 통합에 대해 제로 제출되어 있다. 과다한 유사중복학과 문제,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서울배우터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용인배우터는 호텔경영, 광고홍보 등의 학과를 개설하여 실용주의 학풍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에 제2간학기학단 단장인 성형웅(행정)교수는 "과다한 중복학과로 인해 많은 학과와 학과들은 외국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상상이나 되고 말한다. 교수층이 미비한 상태에, 특히나 용인배우터는 연구중심대학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현실을 감안하면 교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박이 있다. 그러나 중복학과 통합과 동시에 추진되는 용인배우터에 인가학과를 개설은 가시적으로 바라보면 언론학 등의 기초학문의 부재성과 조화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문의 부수학을 강요하는 것보다 교수층으로 안배음터의 특성학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용인배우터의 지역학 도입은 외국어만 배우는 학풍을 개선시켜 줄 새로운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대학부장 min329@hmail.net

총장 인사부

학내 민주화가 사라진다

“알맹이 없다”면서 방중 중장기 발전안 확정키로

알마전 제2간학기학단의 중장기발전안이 발표됐다. 중장기발전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전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다 나은 중장기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처음 발전계획보다 완화된, 다시 말해 뚜렷한 계획은 없다. 어떤게, 직원 노조, 대학원 등 사방에서 반대하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집단별, 분야별로 반대하는 이유를 너무 많이 참작한 결과다.

중장기발전안은 크게 구조조정으로 행정체제를 통합하는 것과 각 단과대학 정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전국에서 단과대 다음으로 직원 수가 많다. 인건비를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해 종합정합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직원을 줄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매년 60여명이 절감되며 이 돈은 학교발전에 투자 할 것이다.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복학과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복학과 통합 등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것이다. 하나 중복학과 통합에는 초창기 때 갖고 있던 알맹이가 없는 것이 지금의 한계이다.

중장기발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확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소요예산이나 확보방안이 불명확하다. 어떤 생각인가?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물가에도 예산 집행하고 예산에서 조정,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면 순조로를 거다.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친 중장기발전안 공청회 결과, 구성원의 의견은 수렴했는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공청회에 관한 보고서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는 15일(목) 제2간학기학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아 공동체제를 해야 할 듯하다.

본관신축과 관련 서울배우터 총학생회는 중장기실의 집기를 들여다본 본관신축의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본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5.5%의 학생들이 '구체적인 재정확보는 본관신축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굳이 본관을 신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관신축의 경우, 작년에 이미 결정했고 실계를 끝내고 지금은 건축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박학 때 공사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2학기 때 공판제를 형성한 후 반드시 신축할 것이다.

본관신축을 위한 재정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모금만으로 본관을 짓겠다고 한 적 없다. 큰 건물 지으면서 어떻게 남의 돈만 쓰겠는가? 학교도 쓰지 가능한 한 모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돈(건설기금)이 한해에 90여에서 140여까지 쓰였지만 본관신축을 위해서는 금년 20억원, 내년 60억원을 건설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학생들 학금이 오를 이유 없고 학교발전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공판문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필요 한 일이며 때문에 내는 대안도 없다.

학내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20년전부터 계획한 것이다. 동문회, 이사회, 최근 구상원들도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본관신축은 나의 지존이다.

결과는 매년 건물을 올리고 성급관에는 외부기에서 건물을 지어주지만 우리학교는 재단수익사업이 없어 무언지 않게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다. 2년 후면 내가 퇴임을 하는데 본관을 신축하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2학기 등록금을 책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된 등록금조정위원회(등조위)와 같은 기구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등록금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나? 2학기에도 1학기와 같은 금액으로 등록금을 내야 한다. 이미 2000년 예산에는 1.2학기 등록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문제는 사실상 등조위에서도 해결 안 된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찾아가면 '학교는 학교대로 등록금지사를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해도 규정을 어길 수 없다. 어떤 일든 대화와 과정을 거쳐야 학생들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면 안된다. 나는 학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좋은 일은 해야 한다.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구조단과 싸워도 교수를 내놓고 싸웠다.

한 학기동안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채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방중 학교의 개혁을 실행해 달라.

나는 중장기발전이 정식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 후 중장기발전안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위원회의 중과장원조정위원회를 하나씩 구성해서 최종 확정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전부 몰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공판제를 형성한 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개인의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학교의 위상을 높여야만 해를 맞을 수 순조로운 정식으로 일하게다.

대학부장 min329@hmail.net

외국어연수생 모집

- 20주간의 집중영어연수과정 -

- 모집대상**
 - 20주 집중 주 : 인건, 경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그리스어, 핀란드어, 루마니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유고어, 마리아, 이탈리아, 대만어, 베트남어, 인도어, 타이완어, 미얀마어, 아프리카어 (총 24개 언어)
-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과 학 명	교육 기간	수업 시간	수업 요일
주간과정	2000. 7. 1 - 2000. 12. 15	09:00 - 19:50	월 - 금 (주요일)
야간과정		18:30 - 21:20	월 - 금 (주요일)
- 3. 지원절차 및 접수처**
 - 신청서 및 접수처 : 2000. 6. 15일까지 신청
 - 외국인연수생지원 (영문)신청서(FAN)접수처 : 접수처
 - 제출서류 : 입학신청서, 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사진 (2인치 2매)
- 4. 반납금**
 - 입학 및 반납금 : 2000. 6. 25(토) 전, 본 대학교 외국인연수생지원
 - 학費 : 2000. 7. 15(수) 전, 본 대학교 외국인연수생지원
 - 입학비 : 2000. 7. 15(수) 전, 본 대학교 외국인연수생지원
- 5. 기타**
 - 시행기관 : TOC, TOEFL, TOEFL, TOEFL 및 외국인어를 위한 한국어교육 수시교과
 - 교육기간 : 2000. 7. 15(수) 전, 본 대학교 외국인연수생지원
 - 반납금 : 2000. 7. 15(수) 전, 본 대학교 외국인연수생지원
 - 문의처 : TEL 401-4105 FAX 902-0055

2000학년도 제 2학기 장학금 수혜신청 접수안내

2000학년도 제 2학기 장학금 및 고시장 장학금 수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학생은 기일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1. 성적장학금**
 - 신청기간 : 2000. 6. 15(수) - 6. 21(수)
 - 신청처 : 2000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에게 결사할 수 있는 지
 - 신청장소 : 본인 소속 학과 장학금
 - 신청서류 : 1. 장학금수혜신청서(학 과 장학금) 2. 기일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 2. 고시장 장학금**
 - 신청기간 : 2000. 6. 15(수) - 6. 21(수)
 - 신청처 : 2000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에게 결사할 수 있는 지
 - 신청장소 : 1. 장학금수혜신청서(학 과 장학금) 2. 기일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서류 : 1. 장학금수혜신청서(학 과 장학금) 2. 기일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 3. 기타 장학금**
 - 1. 장학금수혜신청서(학 과 장학금) 2. 기일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 고

- 도서관 휴관 -

서울캠퍼스 도서관은 2000학년도 제 1학기 여름방학 기간에 도서관 시설개선 및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휴관을 예정하고 사무실을 통합하여 이송중의 서비스와 정보전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관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 1. 휴관기간**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단, 휴관 기간은 휴학하여 미복학 수 있음)
- 2. 휴관장소**
 - 가.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나.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다.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3. 휴관장소**
 - 가.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나.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다.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4. 휴관장소**
 - 가.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나.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다.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5. 휴관장소**
 - 가.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나.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다.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6. 휴관장소**
 - 가.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나.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 다. 휴관장소 : 본 도서관 휴관장소

공 고

- 도서관 휴관 -

“농촌봉사활동의 사회봉사학점 인정에 관한 대규”에 의해, 2000학년도 하계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일정을 공고함.

- 1. 휴관**
 - 가.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나.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다.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2. 휴관**
 - 가.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나.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다.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3. 휴관**
 - 가.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나.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다.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4. 휴관**
 - 가.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나.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다.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5. 휴관**
 - 가.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나.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다.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6. 휴관**
 - 가.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나.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 다. 휴관 : 2000년 6월 22(수) - 6월 31(금)

더 나은 '우리'를 위해 방학을 딛고

● 용인배움터 마하리 반전박람회

매화한기가 진동하는 고장이라 매량리라 불리던 그곳, 매한리 주민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땅에 50년전 미공군 폭격장이 들어섰다. 어처구니 없게도 미군은 어떠한 보상이나 가지 사용료 없이 방대한 부지에 이르는 매한리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장악하여 폭격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그 후 50여년 동안 매한리에는 미공군의 폭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었으며 집은 화야내음과 천지를 진동하는 폭격음만이 있는 제암의 땅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연습' 어릴적 나무총을 들고 입으로 '뽕야'라고 외치며 하는 놀이가 아닌 것이다.

전쟁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평화적인 군속(군비축소)을 통해 전쟁의 염문을 이 땅에서 걷어내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미군의 전쟁준비를 가장 삼식적으로 보여주는 매한리 일대에서 대규모 군속박람회를 개최한다. 매한리 미공군 폭격장의 폐해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한반도 전쟁 반대에 평화적 군속을 촉구하는 것이 될 것

이다.
일시- 6월 22일(목) ~ 24일(토)
문- 출학생회(4152)
그 곳에서 무엇을 하나?
○ 전시화- 매한리 미공군 폭격연습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 및 폭격잔해 등 자료 전시회
그간 매한리 등 미군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분석 언론 전시회
노근리 양민학살 등 미군범죄, 불법동한 한 미군계의 실상, 전쟁연습으로 인한 극심한 환경과 실상을 알리는 전시회 등
○ 매한리 현장체험
○ 안치환과 함께하는 락페스티벌 및 반전영화
○ 촛불대화와 안치환은 매한리 출신, 그의 함께 매한리를 가슴으로 노래해보자.
○ 매한리 하루 농활
○ 매화나무 심기 및 미군부대 항의분문



● 7.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남북 단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의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3대 원칙으로 채택하여 공동선언을 발표한 72년 7월 4일의 7.4 남북 공동선언이 올해로 28돌을 맞이한다. 특히, 분단 이후 남북의 최고 정상들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지금, 통일을 이루자는 온 민족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한 이 때,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통일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7.4 남북공동선언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한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

3. 쌍방은 끊임없이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양한 민족적 재단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학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탈북한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와 통기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키고 동시에 남북 사이의 재단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 북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직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전추로 삼고하는 것은 거대한 해결같은 열원에 부합한다고 확인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민족 앞에 약속한다.

● 서울배움터 여름특강

여름특강을 준비한 학생복지위원장 이영조(상경·경제 3)를 만나

1. 여름특강을 준비한 이유
학교수업에서 얻는 부분이 크지만 실제 사회에서, 취업에서 요구되는 어학실력이나 컴퓨터 등은 방학을 통해서 최대한 보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한다.
2. 여름특강의 장점
우선 가격이 사설 학원보다 싸다. 그리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양질의 강의를 받을 수 있다.
3. 여름특강에 바란다
거의 어학특강의 대부분이다. 컴퓨터, 한자 등 너무 실용적인 것들만 하지 않는다면 지적을 받기도 한다. 사실 수요가 없고, 강사 섭외가 어려워 추진하기 쉽지 않지만, 경제학, 사회과학분야 등 다양하게 고민하겠다.
4. 학생복지위원회의 방향에 하는말
특강만큼이나 대외보급, 주자관리 등 학내 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다.



6월	7월	8월
18	19	20
25	26	27
2	3	4
학복위 여름특강개강 (8. 25 까지)		
9	10	11
16	17	18
23	30	24
31	25	1
6	7	8
13	14	15
20	21	22
27	28	29

●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원) 통일선봉대



12기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원) 통일선봉대 활동중 한 서면이여과 과외형 정성숙(3)을 만나

1. 통일선봉대란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남한의 청년학생들이 통일에 일하는 데 있어 밑에 선 선봉에 활동하는 것이다. 그 활동은 살펴보면 부산에 모여 자주군과 대단결을 두 팀으로 나누어 동경(경성도~경기도~서울), 서경(전라도~충청도~서울) 일대도 전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한다. 어떻게 통일을 해야하나,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내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을 한다. 비록 길라잡이 방이지만 우리라나 전국을 돌며 '통일을 하자'는

분위기를 일구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시에 막대한 통일에 대한 생각,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2.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나
처음부터 통일대, 한총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여러집회와 선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무정부주의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 대한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 연결고리를 깨닫는다. 그렇지만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걸면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 후 선배로부터 통일에 대한 교육의 장, 전국에 있는 시민분들과 함께 통일을 나눌 수 있는 장인 통일선봉대라는 말을 듣고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3. 통일대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은 너무 많지만 미산, 창원 지역에서 300여명이 연행되었는데, 연행지침이 늦어 후집근하고 가버려 구경하고 돌아서 악취가 나는 학생들을 검문하여 모조리 연행하라는 것이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조서 무장을 벌이며 통선대 활동의 정당함을 말하고 단단하게 대부분 호반조치로 풀려나왔다. 당시 경험한 '너무 냄새가 나서 안되겠다. 좀 씻고 다녀야'는 말을 했던 일, 밤새하는 신발을 갈아서 두고 경찰 신발을 신고 오는 한

학생의 일, 연행될 차가 모자라 못 신고 가기도 하고, 경찰서 밖에 줄 세우고만 일일이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된다.
4. 통일대 활동, 직접 범민족대의 참가 소감은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행되고 탄압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정권의 통일의 이중성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람찬의 통일대 활동을 하고 10차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서울에서 돌아올때의 그 승리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외, 북에서 날리는 축하와 그곳의 축전상황 메시지를 들으며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

5. 어떤 비련에 개입은
많은 친구들과 직접 통일선봉대생각들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과외장을 결의하고 마약하지만 새내기, 동기, 선배들을 만나며 과외부터 통일까지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다. 올해 범민족대회에는 많은 새내기들과 함께 가서 자신의 삶, 그리고 조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 그리고 조국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한 통일대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통일대활동은 통일의 중요성을 외치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돈으로도 못 사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권유하고 싶다.

● 용인배움터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준비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위원장 손정희(인문·사학 5)를 만나

"학원내에 어문제학 19개 모듬과 한국학으로 참가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이 공연 연수와 리허설 등으로 바쁘게 보낼 것 같다. 방학활동을 통해 호흡을 맞추고 9월 25일에 개막하는 세민전을 알차게 준비할 것이다"

세민전의 역사
세계 각국의 풍물, 문화를 이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학생들의 학업열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의 세민전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세민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항상 헷갈리는 것이 있다. 바로 세민전의 공식명칭. 71년 제 1회부터 제 7회 세민전은 세계민속학술문화(세민전)라고 불렀고 82년 용인 캠퍼스에서 다시 열렸을 때는 세계민속학술문화(세민전)라고 불렀고 83년 용인 캠퍼스에서 열린 세민전에서는 서울, 전국, 교인사 등 2만 5천여명이 함께한 그야말로 범 시민적인 행사로 발전해나갔다. 하지만 제 7회 세민전은 지난해 공연의 규모와 비용, 힘든 연

면서 세계민속학술문화(세민전)라는 이름으로 새로 탄생했다. 그렇지만 세민전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왜 도중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는지 이르지않을까. 세민전은 원래 개교기념행사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명칭없이 대동제형식으로 진행되어 70년 '동남아 문화의 밤'에서 지금의 세민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음 선보이게 됐다. 처음 세민대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71년으로 이를 계기로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되었다. 한편 개교 20주년 맞이한 진행될 제 8회 세민전은 '외대의 이미지와 함께 고대적인 성격을 넘어 범 시민적인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외대의 특성을 살린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던 세민대는 제 8회대회에서 '외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친선'을 목표로 열렸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개최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대회는 7회째를 맞게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울, 전국, 교인사 등 2만 5천여명이 함께한 그야말로 범 시민적인 행사로 발전해나갔다. 하지만 제 7회 세민전은 지난해 공연의 규모와 비용, 힘든 연

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탈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기존의 세민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모순-공연내부의 진부함, 단단대 학생들의 참여 공간 부족, 비대면 공연규모와 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해 맥이 끊겨 개최되지 못했다. 이후 용인캠퍼스에서는 82년에 세민대에 대한 복원이 제기되었고 제 1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은 70년대의 세민전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도약하라!

수				목				금				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재학생 입시홍보를 위한 모교방문단 발대식				용인배움터 매항리 반전박람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여름농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울배움터 사범대 '열린학교'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법민족친년학생연합 통일선봉대 활동기											

2000' 통일대축전 11차 범민족대회



범민족대회는 매년 '통일'을 염원하며 남, 북, 해외에서 공동으로 축전을 벌이는날,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백만 대학생의 축제이래고도 표현이 되죠. 또한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어른선, 노동자현선, 농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매년 우리 대학생들은 북한의 대학생들과 판문점에서 만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일구어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북

이 따로 행사를 해요. 우리의 통일열정을 기로막은 장에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과목인데 건전한 교류조차도 금지하고 인권탄압의 틀이 되는 악법 중 악법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학교에 모여 통일에 관한 강연, 우리의 역할 등을 토론하는 행사들이 열리고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와 춤도 배워요. 아주 재밌죠?
일시: 8월 15일 / 문의: 양배움터 총학생회

재학생 입시 홍보를 위한 모교 방문단



"배움터, 외대는 세계화, 개방화시대"

에 맞춘 대학이아~
3000학년도 입학원한이 정해짐에 따라 입시홍보를 재학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출신 모교 산배로서 후배에게 직접적으로 학교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나누는 장이다. 자기 자신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모교에 가서 선생님들도 보고 후배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모로 좋은 기회이다. 이번 방문단은 지방 학생들은 평택에서 중, 고, 인선, 경기 지역은 수원시에서 여주에 원정하게 된다. 모교를 너무 사랑한 우리 모교방문단이다.
모교방문단 참가 팀 20여개
문의: 양배움터 4112

양배움터 '농민학생 연대활동'



농활을 다녀와서
농활은 추억이 아니다
서울배움터 우리역사연구회
'99 김현신(농활백서에서)

처음에 내가 농활을 준비하면서 그저 봉사활동이라니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교양을 듣고 농민학생 연대활동이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미 농활에 대한 의미는 그 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선택해서 하기로 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9월 9일이라는 기간,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난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 농

활이란? 농활은 '농민학생 연대 활동'의 줄임말로 농민은 학생의, 학생은 농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서로에게 다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다. 하지만 농활을 가는 것 자체만이 농민학생 연대 활동의 모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농촌에 내려가는 농활과, 농민회와 함께 하는 작거리 정터, 후속활동 등등의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 나아가 농활에서 배운것들을 통해 모든 민중들과 연대하는 것까지 농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닌 연대활동이 아니라 우리 같이 직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고 노력한다. [마지막]에 얼마만큼의 곡식이 나오나, 이 마을 호수나 얼마나 되는지, 아비나 어머나에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정경은... 이렇게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함께 그분과 신뢰를 나누며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마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나를 발견하였다. 거의 끝나가는 이 활동에 시원스럽게 마음들이 들었다. 마지막 날 전체평가. 전북대에서 새벽 4시까지 평가하던 일, 아니로 (비밀친구) 놀이를 할 일 등, 이렇게 내 첫 여름농활은 끝나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았다. 그때의 활동과 생각들을 지금에 잊어버려 가끔씩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분명 농활은 추억이 아니라고 말이다. 추억이 아니라 안되는 말이다. 내 생활이야 하고 내생각이야하 하는데 지금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금도 비이상을 보면서 기쁨과 격정을 고지하는 농민분들에 대해 부끄러웠다.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다음 농활에도 내가 참여할 거란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들이 더 지워지기 전에 말이다.

서울배움터
일시: 8월 29일(목)~7월 8일(토)
장소: 전라북도 콧곳에서
문의: 각 단대 학생회실

용인배움터
일시: 6월 29일(목)~7월 8일(토)
장소: 전라도 일대
문의: 각 단대 학생회실

사범대 '열린학교'



사범대 '열린학교'를 준비하는 사범대생 박현정(영국 3군을 만나

로 만났는데 작년의 경우 국어, 영어, 역사, 세계문화, 동물, 연극, 전통놀이 등의 과목으로 진행했다.
3.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6월동안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고 하다보면 재미 어느새가 생긴다. 졸업식 때 우리 친구들이 많다. 열린학교를 3년내내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고등학생 열린학교도 만들어달라고도 한다. 물론 열린학교가 끝나고도 학생회실로 가끔 찾아와 놀다가는 친구들도 있다.

4. 이번 열린학교에 바란다
사실 교사지원이 적어 이번 열린학교 진행이 조금 힘들다. 나름대로 대학에 들어와서 방학에 하고 싶은일이 있었지만, 열린학교는 정말 교사를 지향하는 사범대생이라면 아이들에 대해서, 장래 교사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사범대생들이 참여해서 여름방학을 함께 알차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알차게 열린학교를 만들고 싶다.

일시: 7월 31일(월)
8월 5일(토) (가인)
문의: 사범대 학생회(4086)

농활

홍지선

논에 들어가 논 고르기
심심해서 하수기 기동 세우기
침 뱉어 채취 단련에도 좋지만
콩밭 옥수수밭 가다나가는
무로 허리 누르는 한해
환상적 일이지요
수미만 수습수속 농동수신
내 마하비로 떠오르고요

가다가 졸라죽었는데
관가니 번도있나
발 땀에 한해 꾸벅 졸기도 하지요
부내만 모일 노래를 듣고 있다.
산행나 노릇소리 자정기 되어
꿈에 말은드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토록 졸라와도
내 마음 졸라주는
사람스런 여자 친구와 누구누구
사람과 죽고 못해 우물거 보초
서둘라 할 때

'참 잘났구나 잘 왔어'
말없는 애정에도 듣고
달래 한 개비 잔치하면
논 소리 뻑뻑 니고
두란두란 소근거리는 소리
아니 마하내 가슬 광양거는지
은근히 담 내니 볼까말까
콩밭도 반박하는 말하늘
아닌 바람을 부끄러워

나는 역 학생회
나는 안돼 안돼 숙물이며 숙물
그렇게 가슴 졸이며 안락하
시간이 흐를수록 대박이지만

이디저도 애정하 이쁘다왔던 밤
도 있을까?

방그려이 나는 그네
속속한 마라카케 달빛 보오인 얼굴
살강게 미소 짓는 한 마디
'오오 그마유'

총학생회 '기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에서는 기지촌 활동을 한다. 7월말(가인)로 확실한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지만 경기동부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갈 예정이다. 한국에서이지만 한국사회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보며 가슴으로 함께 느낄 사람을 기다린다. (총학생회 4155)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 활동(기말)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에서 벌이는 활동'이다. 즉 기지촌지역에서 기지촌 여성들과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지촌 지역, 기지촌 여성, 기지촌 어린이들의 문제를 우리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다 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

다. 기지촌에 대해 이해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지촌 지역이 생긴 배경,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한국사회와 매체들 문제, 한일아동의 문제 등이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지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줄여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활동이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은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순서이다. 어떤 한 여성의 비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분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보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활동이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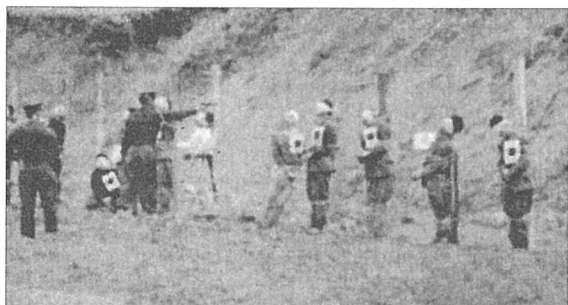
최현정 기자 / 윤홍은 기자

지우고 싶은 그 이름 주/한/미/군



누가 이것일까?

매항리 쿠니 사적지 폐쇄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꾸려지고 있는 등 매항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지기 철거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와 전투경찰의 모습. '한국' 경찰은 27개 중대 3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 '미국' 사적지를 지키려 했다.



철조망, 끊고야 만다

이제부터 철거는 시작이다. 지난 6월(화) 매항리에서는 한층더 소속 학생들과 매항리 주민,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 사회단체 인사 3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쿠니 사적지의 철조망을 끊고 기동을 벌인 등 미군 주둔 이후 최초로 미군기지 철거 시도가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매항리의 주민들은 철조망이 끊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한호성을 지르는 등 50년 동안 한을 다 씻어내는 듯 했다.

사진은 한 학생이 절단기로 쿠니 사적지의 철조망을 끊고 있는 모습.



제작 최호영 사회부 기자

◀ 주한미군은 뺄소니!

주둔 이후 10년간에 달하는 범죄, 주한미군 범죄는 하루에 5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불합당한 한미행정합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배상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4년 미군범죄 중 가장 많은 부분(70~80%)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이은경씨이다. 이씨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의 복숭아뼈 2개가 심하게 부러지고 왼쪽 종아리 뼈에 금이 갔으며, 머리가 떨어져 4바늘을 꿰매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 갓 아웃! (get ou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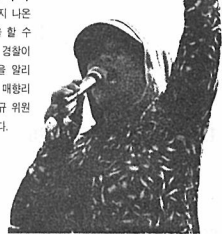
집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 몇몇 학생들이 사적지 앞에 세워진 'WELCOME to KOON' 라는 안내 간판에 스프레이 칠을 하여 사적지 폐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 학살자 없는 학살

지난 해 노근리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수많은 양민학살들의 사실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한 정부나 미국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까지 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 정치범들을 학살하고 있는 이 사진은 미 정부에 의해 배제된 문서로 분류되어 있었다.

전만규 위원장 석방하라

매항리 부녀회장은 이날 "내가 여기까지 나온 데에는 만규 때문이다. 여기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규밖에 없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잡아갔다"며 미공군의 폭격연습을 알리는 깃발을 쏘아 기쁨과 손으로 구속된 매항리 미공군 폭격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외대인들의 한마디



사회·적외외교 3-김다을

"55년만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대해 환영해요.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하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계속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독양·터키어 4-손도섭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을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후에 문화교류가 많아지고 통일을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양·이란어 3-김태선

"분단이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도 더 확대되어 이질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법·법학 2-강영두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통일의 반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정상회담이 발전해서 정경화되고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하고요."



서양·포르투갈어 3-김정현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만남을 통해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통일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양·독어 2-이재현

"수백 걸출기식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같은 끔찍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상호간의 교류도 지금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래."